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도발적 경고

파이어아벤트의 《이성이어, 안녕!》(Farewell to Reason)

이봉재

서울산업대 교수·인문학

오늘날 과학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핵의 공포, 환경오염, 복제인간의 문제 등 과학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무서운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한때 축복받은 이성의 표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끔찍한 악몽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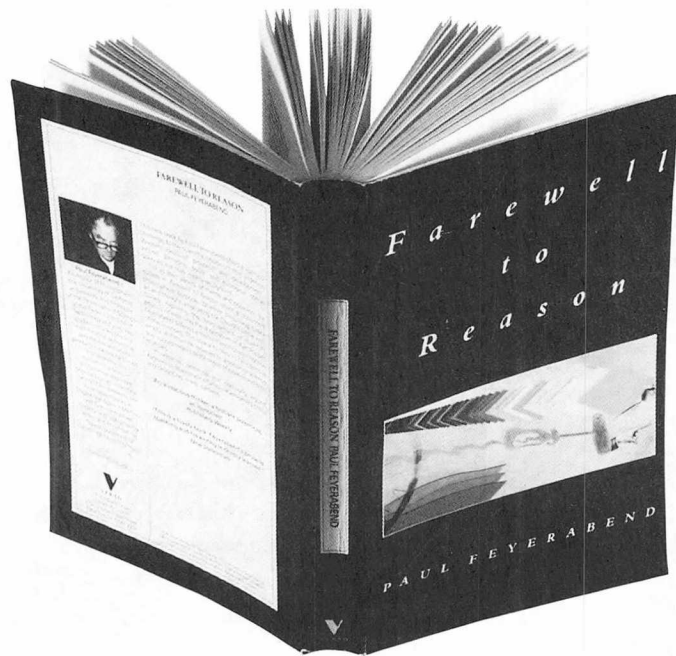
과학과 진보에 대한 18세기적 낙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우리 시대의 성숙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책없이 과학을 불신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다. 과학의 발전 말고 과학이 야기한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인데, 이 점에 있어서 파이어아벤트는 긴요하다. 서구의 과학과 합리성의 전통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로서 널리 알려진 그를 통해 우리는 서양과학의 본질에 대하여, 그것을 합법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부정의 귀결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옹건 그르건 간에 결코 혼할 수 없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파이어아벤트는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이성이어, 안녕!》(Verso, 1987)은 과학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글모음이다.

혼란의 시대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많은 사상가들은 우리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다양한 사상과 가치, 관점, 스타일이 난무하는 '새로운 불투명성', 통제할 수 없는 복수성(複數性)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자 문제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어아벤트의 의견은 다르다.

보다 통일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서구의 오늘이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구과학의 완전무결한 지배력으로부터 나타나는 통일성보다 더 두드러지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과학의 껍질을 둘러싼 합리성의 정신이 세계의 모든 곳에 침투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동안 숙성되어 왔던 지역 문화의 전통들이 망실(亡失)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우리 시대의 미래를 알기 위해 과학의 내밀한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파이어아벤트는 그 유용한 창을 제공한다. 서양과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그 부정의 귀결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의미심장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가? 그리고 도대체 합법적인가? 파이어아벤트의 문제의식은 이런 물음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서구 과학의 자부심은 과학이야말로 보편성과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 영역이다. 보편성과 객관성에 의하여 과학은 일개의 전통이 아닌 '유일한' 합리성의 영역이 된다는 말인데, 이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나 있다. 많은 과학사학자·과학사회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과학적 증거가 갖는 증거력의 한계, 과학외적 변인들의 작용 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무런 단서 없이 과학의 객관성·합리성을 운운할 수 없게 되었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깨달음을 극단적으로 밀고나가, 모든 지식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전통 속에서 작동하는 '국지적인(local)'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이어아벤트는 우리가 이성적인 것, 합

리적인 것에 대해, 과학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구과학과 합리성의 정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특정한 전통(고대 그리스 문화)의 산물임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다른 여러 문화적 전통들에 대해 철저한 다원주의 내지는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인상적인 현대과학의 성공 역시 과학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서만 의미를 갖는 목표 상관적(goalrelative) 개념이며, 따라서 과학의 성공은 특정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기준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다원주의·상대주의의 입장

예컨대 현대 서양의학이 동양 전통의학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질병의 퇴치는 병의 인과적 메카니즘을 밝혀낸 현대의학의 병리학적 성과라기보다는 환경의 청결, 깨끗한 식수의 공급, 건강에 대한 인식 발달들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현대의학이 병리학적으로 진보하기는 했지만, 더 강한 내성(耐性)을 가진 균을 만들어내고, 더 고통스러운 난치병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동양의 전통의학만이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병의 예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대의학의 우월성도 우리의 서구화된 가치기준 아래에서만 의미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진대 모든 전통들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며, 따라서 과학의 진리독점적 권한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파이어아벤트의 결론이다. 이는 우리가 과학 없이 살 수 있거나 과학의 효력 자체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진정한 다원주의'이자 '인간적인 상대주의'이다. 어떤 전통을 평가할 수 있는 전통 바깥의 지점(객관적 입지점)은 없으며, 하나의 전통이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진리 같은 것도 없다. 생물계의 보존을 위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요구되듯이 전통의 다양성 또한 인간종의 행복을 위해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지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진리의 특별한 양상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 과학의 합리적 정신을 불변의 가치로 삼는 합리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성이어, 안녕!》이라는 책 제목의 의미다. 그런데 이 경고는 일종의 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의 주장에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파이어아벤트를 따라 모든 전통은 외부로부터 평가될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모든 전통의 이해와 변화는 전통 안에서 또는 전통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어떤 전통으로부터도 '거리를 둔' 보편적 성찰의 자리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하나의 전통 안에서 움직이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소망,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전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추상적 지식의 세계는 일정 정도 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거부는 파이어아벤트에게 모든 추상(抽象)에 대한 회의가 되며, 보편적·철학적 연술의 피상성에 대한 경계가 된다. 키에르케고르가 빈번히 인용되는 이 지점에 이르면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가 과학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문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파이어아벤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일 듯싶다.

◆